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셀젠텍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시스템 '에스키퍼'

“센서 통해 병원의 마약류 반출 내역 자동 기록”

2012년이였다.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이라는 마약류 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흰색이어서 ‘우유주사라고도 하고, 맛기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는 약이라고 했다. 이후로도 마약류 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벌어진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다. 오는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후에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및 약국 등은 취급 전 과정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김희을 셀젠텍 대표는 “우리가 만든 에스키퍼는 마약류 취급과 관리를 편리하고 빠르게 번들입이 해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OTP에 지문까지 첨부보안

김 대표가 작은 냉장고만 한 금고를 가리켰다. 에스키퍼를 설치한 이중잠금장치 금고였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약품은 이중으로 잠글 수 있는 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시범을 보여줬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를 받아야 했다. 고정된 비밀번호가 아니라 은행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처럼 비밀번호를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누가 비밀번호를 내려받아 금고를 열었는지는 모두 기록에 남는다. 문자를 통해 받은 4자리 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증하자 마침내 금고가 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금고 입구에 숨겨진 센서가 금고에서 나오는 약품들을 감지해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기록했다.

김 대표는 “대형마트나 유니클로에서 사용하는 도난방지 태그와 같은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니클로 매장 출입구마다 있는 도난방지 게이트는 계산



김희을 셀젠텍 대표가 마약류 약물 출입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에스키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마약류 취급 병원 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고해야

마약류 약물 입·출고 내역 실시간 기록 가능한 제품 개발 “1800억원 규모 시장 열릴 것”

되지 않은 상품이 통과하려 하면 전자태그를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 에스키퍼도 마약류 약품에 붙은 전자태그를 감지해 약물 출입 여부를 기록한다. 김 대표는 “약병을 꺼내 일부 용량을 덜어낸 뒤 다시 집어넣었을 때 무게 변화를 감지해 기록하는 기능을 연말까지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시범을 보인 제품의

가격은 약 300만원 중반대다.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변신 중

김 대표는 최근 인건비 증가로 인근 병원 들꺼리 간호사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에스키퍼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은 늘어나는데 간호사 수는 줄어 약물 관리에 하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5월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과 약국 등은 2년 안에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약제부가 따로 있는 대형 병원 대신 중소형 병원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16년 기준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이 국내에 5만 7000곳”이라며 “1800억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셀젠텍은 2011년 피시피아라는 이름

설립	2001년 8월
위치	대전 유성구
제품	마약류 약물 통합관리 시스템 에스키퍼
특징	마약류 출입을 실시간으로 관리

으로 설립됐다. 김 대표를 포함해 삼성전자 출신 동기 4명이 나와서 창업했다. 초기에는 서버를 만드는 일을 하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군용 시뮬레이터를 제작해 납품했다. 이후 서버를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화벽을 만들기도 하고 화학실험에 필요한 시뮬레이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2016년 코넥스에 상장했다.

셀젠텍으로 사명을 바꾼 건 지난해 6월이다. 외부 투자 대신 기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 생명공학기술(BT) 분야 벤처기업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포(cell)와 유전자(gene) 등 단어를 합쳐 새로 지은 사명이 셀젠텍이다.

셀젠텍은 오송에 연구개발(R&D)센터도 짓고 있다. 6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대장암 진단 플랫폼과 자연살해세포(NK)를 활용한 신약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내년 5-6월 코스닥시장 상장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전=이우성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진흙탕 싸움된 중기중앙회장 선거

뉴스카페

각종 비방과 잠입 난무

오늘 후보 등록 ... 선거전 돌입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다. 대통령이 새해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라고 청와대에 주문하면서 비서실장이 5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뻐할 만했다. 올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이날 하루 종일 별집을 쭈셔놓은 듯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이 노 실장의 방문을 두고 주판알을 튕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가깝다고 주장하는 A후보가 비서실장 방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후보 측은 “중앙회장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관련선거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예비 후보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선거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잠입이 나오고 각종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360만 중기(中企) 대통령'으로 불

리는 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28일 치러진다. 경제단체장 중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는다. 예비 후보들은 7-8일 신청한 뒤 9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근 B후보 측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B후보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인 이 사장들에게 보냈다.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자를 보낸 B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C후보가 벌써 선거비용과 과다한 금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D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부회장이거나 다른 감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2강1중으로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거나 “1강2중으로 누가 유력하다”는 판세 분석도 벌써 나와 있다.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입소문 마케팅이다. 수도권 한 이시장은 “중기기업계가 최저 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며 “후보와 선거 캠프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각종 유언비어가 판치는 게 중소기업계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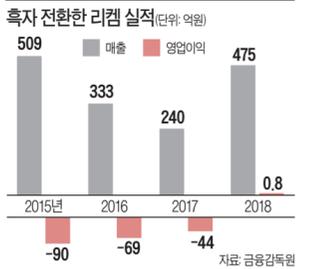
상폐 위기 몰렸던 리캠 '기사회생'

4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
지난해 매출 전년비 98% ↑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리캠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캠2차 전자 소재기업 리캠은 지난해 47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240억원) 대비 98.03% 증가한 수치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458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영업이익은 44억원 손실이었다.

현행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한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관리종목에 올랐던 리캠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캠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전자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차전자 수요 또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리캠의 주력 제품인 전해액(리튬이온용 양극에서 음극, 또는 그 반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동매체) 매출이 늘었다. 회사 측은 “중대형 2차전자 전해액 매출이 증가했고 신규 개발한 첨가제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정부, 中企 해외 진출에 2000억 지원

중소 해외진출지원사업 공고
수출 중소기업에 예산 20%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총 1929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6일 '2019년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중기부는 전체 사업 참여기업 중 6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선정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1146억달러)를 기록한 중기 수출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역량이 뛰어난 수출 강소·신도기업군에 예산의 10-20%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온라인 기반 수출이 늘어나고 있

다는 점을 반영해 온라인 수출 지원 예산을 작년 177억원에서 올해 422억원으로 138% 늘렸다.

회장품 등 소비재와 생활용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류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대중예술 공연, 예능·드라마, e-스포츠 등이다.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 진출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정상 순방 등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해당 국가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고비즈 코리아를 참조하면 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명절 피로 푸세요” 한샘은 오는 10월까지 서울 용산 한샘디자인파크에서 명절 때 지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명절 증후군 회복 이벤트를 연다. 방문객들은 리클라이너와 안마의자를 사용하여 피로를 풀고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시은품으로 받아갈 수 있다.

한샘

프랑스에서 온 유기농 스킨케어

바바파파 베이비

BARBAPAPA BABY

유기농 스킨케어 시장의 새로운 바람! 바바파파 베이비

유기농 유기농 인증협회 ICEA COSMOS ORGANIC 등급 획득

전체 성분 95% 이상 천연원료 사용, 독성 물질 사용금지, 향료, 보습, 보습까지 전부 기능에 부합하여 최첨단

홈페이지 www.barbapapababy.com

대표번호 02-511-7788

꿀꿀한 엄마들의 선택 바바파파 베이비!

“하루에 두세번씩 목욕하는 아들이라 피로할 수밖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유기농이라 안심하고 깨끗한 샴푸로 냐!”

“유기농 제품인데 거품도 많고 향도 좋아서, 순한 느낌이 딱 좋아요! 눈도 따갑지 않아서 무조건 샴푸로 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품이 있어서 일교차가 큰 겨울엔 꼭 샴푸로 냐!”

“향이 진해줘서 아기 피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재구매에 대한 믿음과 안심하고 사용해요!”

백화점 입점브랜드 바바파파 베이비!

산이백화점 강남점

현이백화점 목동점

현이백화점 만고점

현이백화점 미아점